

진안군 먹거리 공모 연이어 선정

2023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 등... 4000만원 사업비 확보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한 '2023년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선정돼 4,000만원의 사업비(국비 2,800만원)를 확보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민관협업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직거래장터는 진안군이 주관하고 민간법인인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농가 모집 및 현장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오는 5월 5일 개장에 11월 말까지 진안로컬푸드 전주 효성점 앞 광장에서 총 1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참여 농가교육 및 조직화를 통해 생산자실명제·원산지표시제·리플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소

비자 신뢰 확보에 나섰다 또한 지역 문화 연계 프로그램으로 △비비큐 시식행사 △여름철 과일화채 만들기 △가을철 임산물을 활용한 그로서리(복합식품매장) 운영 △겨울철 김장체험 행사 등 다채롭고 알찬 일정을 준비해 풍성한 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지역 먹거리 포괄(패키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60억원(국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진안군은 평균 해발고도가 400~500미터로 남한 유일의 고원자대인만큼 맛과 향, 식감



이 빼어나고 신선도와 저장성이 탁월한 고품질 농특산물로 유명하다"며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 제공과 다양한 먹거리 문화체험의 장 마련으로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진안군 농업인 소득향상과 지역 활력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외국인 근로자 건강 살핀다

무주군, 결혼이민자 친인척 400명 대상 무료검진

무주군은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208명에 대한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간질환 의심 73건, 마약 양성 5건, 간염 의심 7건, 결핵 의심 2건 등 129건으로 2차 검사 및 상급병원 진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면서 농가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역 내 마약검사 지정병원이 없어 계절근로자 입국 시 인근 도시까지 이동해 검사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외국인등록 시 필요한 마약검사 확인서 발급을 통해 시간·비용(10만원 정도)을 절약해 농가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군은 네덜란드, 필리핀과 계절근로자 초청 협약(MOU)을 맺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어 4월말 입국



예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친인척 4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에 착수했다. 검진은 기본 검사(혈액, 소변검사), 감염병 검사(마약·간염·결핵·성병), 그리고 맞춤형 검사(폐암·전립선암, 50세이상, 유방암 30세 이상)등이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농가주를 통해 본인 내과전문의 진료, 의뢰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 원무팀 선화 팀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수시 소통하고 외국인 현지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외국인 검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진안군은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군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점검대상은 7개 분야 총 90개소로 분야별로는 △건축시설 11개소 △생활·여가 19개소 △환경·에너지 14개소 △교통시설 17개소 △산업·공사장 2개소 △보안·범죄·식품 3개소 △기타 24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개별법에 의한 체크리스트 및 시설유형별 점검 가이드 등을 활용해 진행되며, 민관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해 도출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모집

장수군이 올해 7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바우처 카드 이용 가맹점을 모집한다.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민생기 회복식 군수 공약사업으로 장수군에 주소 무 13~18세 청소년들에게 반기별로 10만원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와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군은 사업시행에 앞서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4월 말까지 가맹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5월에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모집하는 가맹점은 장수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사업체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청소년 출입금지소속, 학원, 온라인쇼핑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말기 정보(VAN 사명,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단말기 사진을 찍어 방문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농업인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19세 이상 영농 종사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인자... 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 등 9종

무주군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 짓도록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 중 발생하는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정함을 구축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다. 1억7천여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80%(자부담 20%)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다.

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9종이며,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복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함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스마트 관광지도 음성안내 시스템 추가

무주군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스마트 관광지도에 위치기반 음성안내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주군을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편리한 관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22년 웹 플랫폼을 통해 무주군 관광을 쉽게 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무주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웹 사이트에 URL(mujudadorak), QR코드로 접속할 경우 무주군 주요 관광지, 음식, 레저, 숙박업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클러스터를 통해 주소 전환번호, 상세정보와 리뷰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주요관광지의 검색순위와 인접 지역의 전자지도와 연계하여 관광지까지의 길 안내도 제공한다. 이번엔 추가로 구축하는 위치기반 음성안내 시스템은 군이 선정한 주요 관광지의 일정범위 안으로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관광지에 대한 음성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가 제작되었다.

이로써 관광지도와 역사지표(수집기록물) 등 보유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음성데이터로 전자화에 따른 정보관리의 현대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올해 50개의 주요관광지에 위치기반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주군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스마트 관광지도에 음성안내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군이 스마트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음성안내 시스템은 군이 선정한 주요 관광지의 일정범위 안으로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관광지에 대한 음성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가 제작되었다.

이로써 관광지도와 역사지표(수집기록물) 등 보유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음성데이터로 전자화에 따른 정보관리의 현대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올해 50개의 주요관광지에 위치기반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주군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스마트 관광지도에 음성안내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군이 스마트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진로상담·진로체험 운영

무주중 학생 3명에 장학금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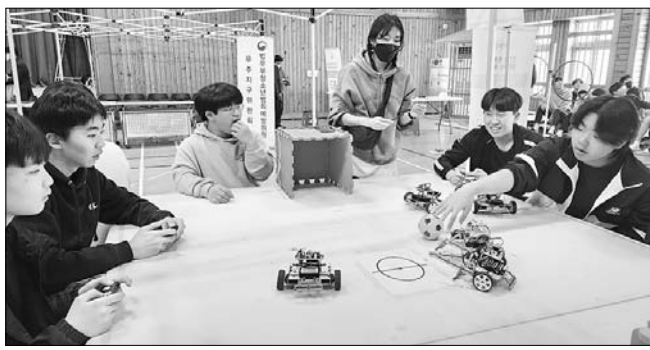
무주군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상담과 진로체험을 마련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직업인들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해법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무주지구협의회(대표 최민휴)에서 주최하고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무주 지역 내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을 운영한다.

17일 무주중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을 오는 7월 까지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날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은 전문 직업체험 업체의 웹툰작가, 로보틱공학자, 특수분장, 네일아티스트, 3D펜 전문가, 드론전문가와 관내 기관 직업



17일 무주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진로상담·직업체험.

군 경찰관들도 동참했다. 이외에도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직업상담과 체험으로 확대 구성해 유익한 진로방향을 정보제공,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날 청소년 진로상담 현장에는 전주지검 문홍성 검사장이 직접 무주중 학교에 방문해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무주중학교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도 방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체험에 관심을 쏟는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의 진로상담과 체험을 위해 무주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한 무주보건소, 무주교육지원청 wec센터,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청소년수련관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

장수군이 오는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

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돼 더 이상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소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원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기능성 사포인 함량 2배 많은 흑삼 접목도"

동창욱 진안군의원

인삼·홍삼산업발전 대책 제안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원은 17일 제 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삼 가공시설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 마련과 흑삼 산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동창욱 의원은 한때 인삼이 진안의 기후에 적합해 농가소득의 대표작목으로 자리잡아 2006년 홍삼산업특별구까지 지정받았으나,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점차 진안의 대표작목에서 멀어지고, 인삼농사를 주로하는 농업인들의 암담해지는 상황을 전하며, 인삼·홍삼에 대한



진안군의 방향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인삼 및 홍삼과 기능성 사포인 함량이 홍삼보다 2배 많은 흑삼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 진안군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진안 인삼의 위상을 회복하기 바란다 고 전했다.

동창욱 의원은 "30여년에 걸친 인삼·홍삼 산업도 결실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앞으로의 인삼 및 홍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갑 진안군의원

"전기차 보조금 상향도 필요"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은 17일 제 283회 임시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진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김명갑 의원은 단독주택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진안군 보조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현황을 소개하며,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진안이라는 이미지에 맞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연기관 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상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갑 의원은 "그동안 금강수계지역 환경보전과 용담호 공역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군민들에게 행정의 노력과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확대에 진안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공부 정리 등 전수조사 필요"

이명진 진안군의원

"토지 매입 불편 최소화 돼야"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17일 제 283회 임시회에서 "공부상 마을 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토지를 점유해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 과 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및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명진 의원은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수로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 지적 공부상대로 원상 복구 및 지적재조사를 통해 신속히 정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공적 토지로 이전에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들을 전수조사하여 영농행위를 하거나 토지 매입하려는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돼야 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를 공부상과 대조해 일치시켜나가야 한다. 며 장기적인 진안군의 토지정책을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